

알제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2,382천km ²	G D P	1,901 억 달러(2011년)
인구	35.95 백만명(2011년)	1 인 당 GDP	5,288 달러(2011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lgerian Dinar (AD)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72.94(2011년)

- 알제리는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경제대국임.
- 1999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2009년에 3선에 성공한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회교 무장단체에 대한 사면과 경제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등 그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음.
- 2011년 1월에 고실업률 및 물가상승 등에 항의하며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비상사태 해제 조치, 경제적 유화정책 발표 등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고 끝났음.
-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 상황이 좌우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원유생산량 증가와 농작물 작황 호전 등으로 평균 2~3 % 대의 안정적 성장

- 알제리는 석유산업과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경제성장은 국제 유가와 원유 생산량, 강수량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석유산업은 GDP의 36%,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은 밀, 보리, 감자, 콩 등이 주산물로 GDP의 12%, 전체 고용인구의 25%가 종사하고 있음.
- 2007년까지 국제유가 상승, 작황 호전, 정부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연평균 4.8%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08~09년에 글로벌 경기침체, 유가 하락 및 원유생산량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 대로 둔화되었음.
- 2010년에는 유가상승 및 원유생산량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3% 대로 회복되었으나, 2011년에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2.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2년에는 고유가 및 원유수출량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6%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수요 증가, 식료품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상승추세

- 소비자물가는 국내 수요 증가와 식료품 가격상승,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음. 2011년에도 원유 및 식료품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높은 실업률 등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진정을 위한 공무원 임금 인상 조치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4.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에는 주요 곡물 수입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가뭄에 따른 곡물 수입 가격 상승으로 5.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재정수지는 2009년에 유가하락으로 재정수입 감소 및 정부지출 증가로 적자 전환된 이후 적자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국제유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유가 상승 시 재정수지 흑자, 하락 시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하락 하면서 2009년 GDP 대비 7%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후, 2010년에 유가 상승과 원유생산량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확대되었음. 그러나 경기 부양과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으로 적자가 지속됨.
- 2011년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경제 유효책 시행과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고유가로 인한 원유생산·수출량 증가로 적자 폭은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된 2.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2년에도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원유 수출 수입(收入)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폭은 2.1%로 축소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e	2012 ^f
경제성장률	2.4	2.4	3.3	2.5	2.6
재정수지/GDP	7.2	-7.0	-4.4	-2.4	-2.1
소비자물가상승률	4.9	5.7	3.9	4.5	5.5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의존적인 취약한 경제구조

- 정부의 산업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산업이 총 GDP의 36%, 재정수입의 70%, 총 수출의 98.6%를 차지하고 있어 알제리는 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임.

- 석유산업은 전통적으로 수출의 약 96%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원유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현재는 그 비중이 약 99%에 달해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자원 풍부한 자원부국

- 알제리는 2012년 확인 매장량 기준 122억 배럴의 원유(세계 점유율 0.9%, 세계 15위, 아프리카 3위)와 159조m³의 천연가스(세계 점유율 2.4%, 세계 9위, 아프리카 2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임.
- 알제리는 OPEC회원국이자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GECF)회원국임.
 - * GECF는 천연가스생산국들의 모임으로 OPEC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이며, 2001년 러시아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2008년 정식기구가 되었음. GECF 가입국은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이 세계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아연 등 광물자원도 풍부함.

다. 정책성과

□ 공기업 민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한 편

- 정부는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01년부터 민영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노조의 반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그 성과는 미흡하며, 알제리의 경제활동 및 고용창출의 상당 부분이 공공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에는 향후 많은 난관이 예상됨.
- 알제리의 민영화 추진실적은 2000년 5월의 독일 세제생산기업 헨켈(Henkel)의 국영세제기업(Entreprise nationale des detergents)인수, 2001년 10월의 인도이스파트(Ispat)의 국영제철기업 Sider 매수, 2005년 4월의 스페인 VillaMir그룹의 2개 국영비료공사 매수, 2007년 6월 독일 Linde의 국영가스회사(Entreprise nationale de gaz industriels)인수 등에 불과함.

- 정부는 2007년 국영통신기업인 알제리텔레콤(Algerie Telecom)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09년에 이를 철회하였음. 또한 알제리 3대 국영 상업은행 중 하나인 국민신용회사(Credit populaire d'Algerie: CPA)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임.

□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국가개발 5개년 계획(2010~14년) 시행중

- 석유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는 비석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진흥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자동차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Renault사와의 자동차 합작공장 설립 (약 13억 달러 규모) 협상이 진행중이며 자국 생산 비율을 20~25%에서 60%까지 증대할 계획임.
 - 섬유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500억 디나르(6.7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가죽제품 생산에 300억 디나르, 섬유분야에 200억 디나르를 투자할 계획이라 함.
 - 2010~14년동안 2,860억 달러를 투자하여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 아파트·빌딩, 수력발전소, 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임.
 - 이로 인해 250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중기적으로 10만 개 신규 농장 개발을 통한 30만 명의 고용창출도 계획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원유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 상품수지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수출증대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에는 식료품 수입 증가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라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원유 수출 증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2012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상품수지 규모는 30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도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11년에는 상품수지 흑자로 경상수지가 GDP 대비 2011년에는 10.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2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경상수지는 GDP 대비 10%의 흑자가 전망됨.
- 소득수지는 외국 기업들의 이익금 송금 증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 수지도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개발과 관련한 서비스 지출 증대로 적자기조임. 한편,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힘입어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e	2012 ^f
경 상 수 지	34,452	411	12,131	19,623	20,617
경 상 수 지 / G D P	20.1	0.3	7.5	10.3	10.0
상 품 수 지	40,520	7,784	18,204	28,470	30,890
수 출	78,590	45,186	57,090	72,660	76,526
수 입	38,070	37,402	38,886	44,190	45,636
외 환 보 유 액	143,102	147,221	160,568	180,574	199,459
총 외 채 잔 액	5,825	6,532	8,267	6,390	6,247
총 외 채 잔 액 / GDP	3.4	4.7	5.1	3.4	3.0
D S R	1.7	2.0	0.3	1.5	1.2

자료: IMF, EIU.

□ 오일머니 유입으로 풍부한 외환보유액 보유

-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오일머니 유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806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월 평균 수입액의 34.8개월 분에 해당함.
- 정부가 유가상승에 따른 이익 초과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등 대외부채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3년에 GDP 대비 34.6%를 기록하였던 총 외채잔액은 2006년 이후 3~5%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말에는 3.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D.S.R.도 2%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정권기반 강화

-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국민화합정책 등을 통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2009년 4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어 3선에 성공하였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1999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 및 대통령의 권한 강화, 총리제 도입, 여성의 정치적 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3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국방부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젊은 장교들과 친위 세력을 군요직에 전면 배치하는 등 군수뇌부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정치적인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2012년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자유전선(FLN)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정치적 안정 지속

- 2012년 5월에 시행된 총선에서 총 462석의 의석 가운데 여당인 FLN이 208석을 차지하며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제2당으로는 국민민주연합(RND)이 68석을 차지하였음.

- 한편, 여성의원이 전체 의석 중 125석(31.4%)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지난 2007년 총선의 8%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로 2008년 11월 헌법 주요 개정 사항인 여성의 정치적 권리 확대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2011년 초에 반정부 시위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사태 수습

- 2011년 1월 초부터 높은 실업률,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 등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분신자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2월에는 2천~5천명 규모의 반정부시위대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음.
- 그러나 시위사태 발생 직후 정부가 풍부한 석유재원을 바탕으로 식료품 보조금 확대, 공무원 임금인상, 기업인에 대한 면세혜택, 빈곤가구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경제유화책 등을 발표한 것이 국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1년 2월 25일에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반영하여 19년 간 지속되어 온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였으며, 야당세력의 분열, 강력한 치안조직, 막강한 군부의 영향력, 오랜 독립전쟁과 내전 경험으로 인한 국민들의 무력충돌 회피 심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 * 1954년부터 1962년까지 7년 간 지속된 독립전쟁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1990년대의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국민들은 무력충돌과 사회급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시위는 석유부문종사자, 공공보건근로자, 통신업계종사자, 소방관, 대학생, 종교지도자, 실업자*, 의사 등이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 관련대책 마련 등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전개하였음.
- * 공식적으로 실업률은 10% 수준이나, 총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 실업률이 30%에 달함을 감안할 때 실업대책 등 정부의 경제지원책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정부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 이슬람 무장세력의 활동 지속으로 치안 불안

- 알제리에는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AQIM(Al-Quidain Islamic Maghreb)이 활동하고 있는 등 이슬람세력의 테러위협이 상존하고 있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군의 대대적인 진압 등에 힘입어 과격 이슬람단체의 무장투쟁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 4월에도 AQIM이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슬람세력의 테러위협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 2012년 5월에도 AQIM은 빈라덴 사망 1주년과 총선을 전후하여 알제리 동부 부메르데스(Boumerdes)와 부이라(Bouira) 지역을 중심으로 폭탄테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수십 명이 사상하였음.

3. 국제관계

□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강화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경제협력 및 외교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이념보다는 실리 위주로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알제리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9.11사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강화되었음.
- 현재 EU 가스수입량의 30%를 알제리가 공급하고 있어 EU와의 관계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과거 식민지 지배국이었던 프랑스는 알제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여전히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국가임.
- 2011년 기준 프랑스는 알제리 수출의 9.4%, 수입의 15.1%를 차지하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년 1월 15일 (북한과는 1963년 4월 18일 수교)
- **주요협정:**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97), 문화협정(1997),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1999), 이종과세방지협정(2001), 해상운송협정(2003),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사증면제협정(2005), 형사사법공조조약(2006), 범죄인인도조약(2007), 항공업무협정(2009)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와의 2011년 교역규모는 12.5억 달러임. 수출은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을 중심으로 11.2억 달러,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1.3억 달러를 기록함.
 - 해외직접투자(2012년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30건, 2억 453만 달러
 - 우리나라의 알제리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은 2011년 말 누계기준으로 총 61억 달러이며, 2009년 37억 달러, 2010년 2억 달러, 2011년 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4> 한·알제리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출	1,094,919	1,495,609	1,122,237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
수입	688,359	286,903	130,428	원유, 석유제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알제리는 원유 외에도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석유산업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 2012년 경제는 유가 상승과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2.6%의 성장이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2011년 초에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 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바 있으나, 시위대의 추진력 부족 및 정부의 강온 정책으로 사태가 수습되었으며, 2012년 5월 총선에서 여당인 FLN이 재집권에 성공하여 정치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총 외채잔액 대비 높은 외환보유액, 낮은 D.S.R. 수준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채상환태도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